어린이, 청소년, 청년들과 세우는 하나님 가정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누구와 같이 살았습니까? 우리가 어릴 적, 우리는 아마도 부모님, 조부모님, 혹은 다른 어른들의 돌봄 아래 있었습니다. 또한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해를 계속하여 우리는 친구들 및 친척들, 그리고 선택에 의하여 아니면 때때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혼자 사는 우리들을 발견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와 살고 있는지 아니면 누구와 함께 살았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비전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에 방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념하는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심으로 모든 언어와 민족의 사람들을 하나님 가정으로 초청하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모두는** 하나님 가정에 속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이 살며, 같이 배우고, 같이 축하합니다.

오순절에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같이 살라고 부르시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바라봅니다. 시편 저자는 우리 어릴 때의 신앙 형성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릴 때부터 나를 가르치시니 내가 주의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나이다." 하나님 가정의 가장 어린 구성원들은 신앙과 삶 둘 다 온전하게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이 어린 심령들은 또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령이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는지 보여주며, 때로는 가르치기도 합니다.

오순절 헌금은 우리 공동체와 전국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헌금의 40%는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가정을 함께 세우는데 사용됩니다. 나머지 헌금은 우리 교단에 보내어져 청년들이 그들의 삶에 기초를 세우는 청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부분으로 한 해를 봉사하는 일에 사용되도록 보내어집니다. 또한 3 년을 주기로 약 5,000 명이 모여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장로교 청소년 트라이에니움과 같이 예배와 영성을 경험하는 사역들을 지원함에 사용됩니다. [여러분의 회중은 청소년 대표를 보냈습니까? 여기에 설명합니다]. 또한 이 헌금의 일부는 *아동 교육, 세상의 변화(Educate a Child, Transform the World)*을 통하여 전국의 모든 어린이들의

교육을 지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없다 하여도, 하나님의 가정에는 많은 이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믿음의 삶과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을 축하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헌금을 통하여 우리는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과 그 집을 세움에 함께 참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을 알고 계십니다 . . . 조금씩 보태면, 많은 것이 더해집니다.

기도합시다:

성령님, 우리에게 숨을 내쉬사 주님의 집이 성장함을 위해 헌금하도록 영감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가장 어린 구성원을 위한 특별한 자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환영하신 것 같이 우리의 노력이 기쁨을 표현하게 하옵소서. 아멘.